

민주당은 충분히 이겼을까?

- 광역단체장·광역비례·기초단체장이 서로 다른 말을 했다

17개 시도별 광역비례(단위: %, %p)

시도	민주당	국민의힘	격차 (민-국)
서울	43.86	44.00	-0.14
부산	44.27	49.55	-5.28
대구	33.31	60.69	-27.38
인천	50.37	41.10	+9.27
광주	64.50	8.26	+56.24
대전	48.70	43.32	+5.38
울산	42.46	46.28	-3.82
세종	51.59	35.53	+16.06
경기	49.03	38.46	+10.57
강원	45.81	46.87	-1.06
충북	47.77	44.95	+2.82
충남	47.70	45.62	+2.08
전북	66.15	10.03	+56.12
전남	68.68	7.87	+60.81
경북	29.75	64.05	-34.30
경남	41.29	50.13	-8.84
제주	49.37	32.87	+16.50

이 표가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사실은 다음과 같다.

서울 광역비례 격차는 -0.14%p, 사실상 동률이다. 광역단체장 의석 12:4의 압도적 격차와 비교하면 서울은 명백한 예외이다. 또한 강원은 광역비례에서 국힘이 +1.06%p로 살짝 앞섰지만, 광역단체장에서는 민주(우상호) 51.81% vs. 국힘(김진태) 48.18%로 민주가 +3.63%p 앞섰다. 이는 우상호 후보의 인물 변수가 강원에서 결정적이었음을 의미한다.

● 표는 이동하지 않았다, 빠졌던 표가 돌아왔을 뿐

양당의 득표 변화는 다음 세 경로의 합으로 분해된다.

$\Delta V(\text{민주}) = (\text{이동: 보수} \rightarrow \text{민주}) + (\text{복귀: 비동원} \rightarrow \text{민주}) - (\text{기권: 민주} \rightarrow \text{비동원})$

$\Delta V(\text{보수}) = (\text{이동: 민주} \rightarrow \text{보수}) + (\text{복귀: 비동원} \rightarrow \text{보수}) - (\text{기권: 보수} \rightarrow \text{비동원})$

데이터에서 추정되는 양상은 다음과 같다.

경로	민주당	국민의힘
표 이동	소규모 (2030 남성 일부 → 국힘)	소규모 (40대 일부 → 민주)
투표장 복귀	대규모 (호남·4050)	중규모 (TK·70대 + shy 보수)
기권	소규모 (2030 여성 일부)	중규모 (중도보수 일부)

결론: 이번 선거의 양당 변동은 “이동”이 아니라 “복귀”가 주력이었다. 이번 선거는 선거연합의 해체나 형성 등 변동과 무관하다. 그저 잠들어 있던 사람들이 일어났을 뿐이다.

이 진단의 정책적 함의는 크다. 민주당의 다수는 ‘확장된 다수’가 아니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유권자 집단을 다 동원한 그야말로 ‘영끌 다수’이며, 따라서 다음 선거에서 이들을 충분히 다시 동원하지 못한다면 즉시 다시 약화될 것이다. 즉, 민주당 지지층의 효능감은 영구적 자원이 아니라 언제든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다.

특히 2030 여성들에게는 기권 경로가 함께 작동했을 것으로 보인다. 표가 국민의힘으로 이동한 것은 아니지만, 투표장에 가는 동기는 실제 약화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.

● **광역단체장 vs. 광역비례: 교차투표는 전국적인 현상이었다**

시도	민주 단체장	민주 비례	Δ 민주	국힘 단체장	국힘 비례	Δ 국힘	결과
서울	47.80	43.86	+3.94	49.49	44.00	+5.49	국힘
부산	50.52	44.27	+6.25	47.90	49.55	-1.65	민주
대구	45.05	33.31	+11.74	53.92	60.69	-6.77	국힘
인천	52.84	50.37	+2.47	46.06	41.10	+4.96	민주
광주전남	79.01	68.68	+10.33	11.68	7.87	+3.81	민주
대전	53.48	48.70	+4.78	44.15	43.32	+0.83	민주
울산	48.73	42.46	+6.27	45.74	46.28	-0.54	민주
세종	61.03	51.59	+9.44	36.01	35.53	+0.48	민주
경기	55.04	49.03	+6.01	39.37	38.46	+0.91	민주
강원	51.81	45.81	+6.00	48.18	46.87	+1.31	민주
충북	54.57	47.77	+6.80	45.42	44.95	+0.47	민주
충남	52.53	47.70	+4.83	47.46	45.62	+1.84	민주
전북	(호남통합)	66.15	-	(호남통합)	10.03	-	민주
경북	32.75	29.75	+3.00	67.24	64.05	+3.19	국힘
경남	48.71	41.29	+7.42	51.28	50.13	+1.15	국힘
제주	63.11	49.37	+13.74	33.56	32.87	+0.69	민주

(Δ는 양수일 경우 단체장 후보가 비례보다 더 많이 받은 폭, 음수일 경우 적게 받은 폭)

● **교차 투표의 4가지 유형**

위 표의 16개 시도는 분할 투표 방향에 따라 다음의 네 가지 패턴으로 분류할 수 있다.

패턴 A: 민주 단체장 강세 / 국힘 단체장 약세: 민주 인물 프리미엄형

- 대구(민주 +11.74% / 국힘 -6.77%), 부산(민주 +6.25% / 국힘 -1.65%), 울산(민주 +6.27% / 국힘 -0.54%)
- 특징: 보수 권역에서 민주 단체장 후보가 비례 정당 지지보다 훨씬 더 받았고, 국힘 단체장 후보는 비례보다 덜 받음
- 요인: 민주당의 인물 변수(전재수·김상옥)와 보수 일부의 후보 거부 정서가 결합

패턴 B: 양당 인물 프리미엄 / 국힘 우위: 서울형

- 서울(민주 +3.94% / 국힘 +5.49%), 인천(민주 +2.47% / 국힘 +4.96%)
- 특징: 양당 모두 단체장 후보가 비례를 상회하지만, 국힘의 인물 프리미엄이 더 큼
- 요인: 자산·생활권 변수, 광역단체장에 부동산·도시계획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

패턴 C: 민주 일방형: 호남·제주·세종

- 광주·전남(민주 +10.33% / 국힘 +3.81%), 제주(민주 +13.74% / 국힘 +0.69%), 세종(민주 +9.44% / 국힘 +0.48%)
- 특징: 민주 단체장이 비례를 큰 폭으로 상회하면서 국힘 단체장은 변동이 작음
- 요인: 민형배·위성곤·조상호 같은 인물 자체의 강력한 흡인력, 그리고 호남에서는 조국혁신당·진보당 지지가 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으로 결집

패턴 D: 양당 모두 비례와 비슷 / TK 동조형

- 경북(민주 +3.00% / 국힘 +3.19%)
- 특징: 단체장과 비례가 거의 일치
- 요인: 정당 충성도가 매우 강한 단일 권역. 인물 변수가 거의 작동하지 않음

● 광역과 기초가 갈렸다: 14개 권역 교차투표 전국 패턴

위에서 광역단체장과 광역비례의 득표율 차이와 그에 따른 네 가지 유형을 다뤘다. 이번에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(구청장·시장·군수)의 교차투표를 전국 패턴으로 재구성한다.

전국 교차투표 종합표(14개 권역, Δ민주(%) 내림차순)

권역	민주 광역	민주 기초	Δ민주(%)	Δ민주(표)	Δ국힘(%)	Δ국힘(표)	해석
전북	51.22	67.63	+16.41	+145,569	+0.11	+965	광역에서 김관영에게 간 민주당 표가 기초에서 민주로 복귀
서울	48.07	51.42	+3.35	+166,100	-2.33	-130,234	오세훈 인물 프리미엄 → 기초는 민주 흐름
인천	52.84	55.52	+2.68	+36,620	-2.23	-37,634	유정복 인물 프리미엄 → 기초는 민주
대전	53.48	54.55	+1.07	+2,987	+0.70	+1,129	분할 없음
경기	55.04	54.85	-0.19	-125,867	+4.33	+205,860	추미애 인물 프리미엄 → 기초에서 국힘 회복
강원	51.81	50.57	-1.24	-11,130	-1.72	-15,127	별 차이 없음
경북	32.76	31.59	1.17	-13,829	-9.30	-118,879	이철우 인물 프리미엄 (기초에서 더 식단)
울산	48.73	47.03	-1.70	-8,873	+3.25	+20,168	김상욱 인물 프리미엄 → 기초에서 국힘 회복
충남	52.53	50.61	-1.92	-21,071	-0.28	-3,401	박수현 인물 프리미엄
부산	50.53	48.16	-2.36	-50,262	+1.92	+24,490	전재수 인물 프리미엄
충북	54.58	51.74	-2.84	-23,061	+1.51	+12,482	신용환 인물 프리미엄
경남	48.71	44.65	-4.06	-66,416	-5.48	-91,169	양당 모두 인물 프리미엄
대구	45.06	34.93	-10.12	-136,419	+10.03	+122,376	김부겸 인물 프리미엄 → 기초에서 견제로 회귀
광주전남	79.02	63.81	-15.21	-386,824	-11.38	-185,442	기초는 광주 76·전남 59로 정상화

패턴 A: 광역에서 김관영에게 끌려간 뒤 기초에서 민주로 복귀한 패턴(전북)

- 광역단체장 민주 51.22% → 기초단체장 민주 67.63% (Δ민주 +16.41%p, +145,569표)
- 해석: 광역에서 무소속 김관영 41.78%에게 갈라졌던 민주당 표가 기초에서 다시 민주 셋으로 올라왔다. 김관영의 41.78%는 反민주당이 아니라 反정청래의 일회성 결집이었으며, 구조적으로 이탈한 표가 아니었다.

패턴 B: 인물 프리미엄 타입 -기초에서 양당 지지율로 복귀(대구)

- 광역단체장 민주 45.06% → 기초 34.93% (Δ민주 -10.12%p, -136,419표)
- 광역단체장 국힘 53.92% → 기초 63.95% (Δ국힘 +10.03%p, +122,376표)
- 해석: 김부겸의 인물 프리미엄(비례 대비 +11.74%p)이 기초에서 완전히 사라지고, “김부겸이 시장은 하더라도 구청장·군수까지 민주당에 주면 안된다”라는 심리가 기초에서 제대로 표출됐다.

패턴 C: 호남통합 제3지대 특수 -광역은 민형배 메가, 기초는 정상화(광주·전남)

- 광역단체장 민주 79.02% → 기초 63.81% (Δ 민주 -15.21%p, -386,824표)
- 해석: 민형배 광역단체장 79%는 “호남통합” 프레임 + 이정현(국힘) 효과의 광역 특수였고, 기초에서는 광주 76·전남 59로 “정상 호남 수준”으로 진정됐다. 즉 민형배 79%는 “호남 평시 표심”이 아니라 “통합 특수 결집”이었음을 기초 데이터가 증명한다.

패턴 D: 수도권·울산 양방향 교차 -광역 인물에 끌려갔다가 기초에서 흐름 복귀(서울·경기·인천·울산)

- 서울: Δ 민주 +3.35%p(+166,100표), Δ 국힘 -2.33%p(-130,234표) → 오세훈의 인물 프리미엄이 기초에서 사라지고 민주 구청장들이 흐름을 되찾은 함의.
- 인천: Δ 민주 +2.68%p, Δ 국힘 -2.23%p → 유정복 프리미엄 사라짐.
- 경기: Δ 민주 -0.19%p이지만 Δ 국힘 +4.33%p(+205,860표) → 추미애 광역 프리미엄이 기초에서 국힘 회복으로 이어졌다 - 광역은 추미애가 모은 표를 기초에서는 국힘 구청장·시장·군수가 되찾은 명확한 비대칭.
- 울산: 김상욱 광역 프리미엄이 기초에서 국힘에게 +3.25%p 뒤집혔다.

패턴 E: 양당 광역 프리미엄 타입(경남·경북)

- 경남은 Δ 민주 -4.06%p와 Δ 국힘 -5.48%p가 동시에 음수 - 김경수(민주)·박완수(국힘) 둘 다 광역에서 프리미엄을 관철했음을 의미한다.
- 경북 이철우 역시 기초에서 -9.30%p 단독으로 하락 - “도지사”는 단단해도 “군수” 급은 다른 논리.

분할 없음 권역

- 강원·대전·충남·충북: Δ 민주 $\pm 3\%$ 이내. 광역과 기초가 거의 같은 패턴으로 움직였다. 구도 우위의 권역들이다.

공공정책·정치컨설팅 그룹 원지코리아컨설팅

대통령 PI를 수행한 전략컨설팅의 강자 / 가장 정확한 조사
지자체, 공공기관 정책홍보컨설팅, 빅데이터 분석, 여론조사, 선거컨설팅
주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29, 정우빌딩 9층(여의도동 13-25)